고린도전서 8장

성경 속으로 우리의 여행을 계속하면서 고린도전서 8장을 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 사이에서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분열되는 것은 항상 슬픈 일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의 일들에 관해 말하면서, 날마다 그가 모든 교회의 일들은 보살피는 것 이외에, 그가 갖는 압박감과, 여러 가지 경험과 어려움들을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 등, 문제에 대한 소식은 바울의 마음에 너무나 부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공부할 12장과 14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의 남용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15장에서 다룰 부활에 관한 혼합된 가르침과 부활을 믿는 것에 대하여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열들은 육신적임을 표시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성찬식의 남용이 있었으며, 바울은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분열이 있었는데, 그것을 8장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분열이 생긴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라고 느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것들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모든 활동에 대해 일일이 다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성경에 어느 곳에서도 영화를 보러 가서는 안된다고 말한 곳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영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 괜찮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에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담배를 피우는 것이 괜찮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은 그것은 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식사와 함께 약간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피자를 먹을 때 맥주를 마시는 것은 괜찮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문화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독일과 모든 유럽의 경우, 교회에서 맥주 파티를 하는 것이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자유함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죄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항상 분열을 일으킵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는데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이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 서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공중 바닷가에 가는 것은 상당한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이것에 대해 전혀 죄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 서로 강한 다른 의견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서로를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야 합니까?

그래서 어떤 이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전했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조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답장으로 바울은 말하기를,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인들에게(로마서 14장) 말하기를,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기를 먹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으라. 그러나 고기를 먹는 자는 채소 먹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한 채소 먹는 자는 고기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받으시기 때문이라 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방 신전에 있는 한 이방 신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다룰 것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한 이방 신에게 바치려고 이방 신전에 있는 사제들에게 가져갔을 때, 양의 한 부분은 제단에 제물로 바쳐지고, 다른 한 부분은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행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사제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의 한 부분은 제물을 바친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제들은 하루에도 여러번 제물을 바쳤으므로, 그 때마다 그에게 주어진 부분은 그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았으므로, 그는 그 여분의 고기를 정육점에다 팔곤 했습니다. 정육점에서는 이 고기를 다른 고기들과 함께 팔게 되었습니다. 보통 고기를 끈으로 메달아 놓고 그런 상태에서 베어 팔았습니다. 10장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고기를 사러 정육점에 갔을 때, 너희가 원하는 좋은 부위가 보이면, 고깃간 주인에게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인지를 묻지 말고, 그냥 사 가지고 집에 가서 즐기라고 했습니다. 너희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라. 왜냐하면 만약 그가 그날 아침에 신전에서 갖고 온 것이라고 한 것을 사 갖고 와서 먹었을 때 양심의 가책으로 그는 괴로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에 가책을 느껴, 오! 내가 배탈이 났네, 틀림없이 제물로 바쳤던 그 고기를 먹어서 그럴거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을 식사에 초대하고 식탁에 고기가 있거든, 당신 앞에 차려진 음식을 양심을 위하여 아무 것도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10장에서 다룰 것이고, 여기 8장에서는, 그러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야기된 분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러한 우상들은 아무 것도 아닌 단지 대리석이나, 돌이나, 또는 아마도 나무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지식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들은 아무 것도 아니고 실존하지도 않는 신을 상징하고 있으며 그들이 숭배하는 이러한 신들은 전혀 신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들의 상상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들은 단지 사람들의 상상의 산물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들에게 바쳤던 이런 고기를 먹는 것이 괜찮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자주 있습니다. 대학교 등에 대해 비극적인 일 중에 하나는 이러한 단체들 주위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적 속물 근성입니다. 이러한 단체에 가보기만 하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으로 매우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2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너희는 너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실제로 아무 것도 모르느니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매우 무지한 불쌍한 사람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가장 적게 압니다.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모르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에 의해 증가되는 어마어마한 지식과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통신 과학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축적되어진 지식은 너무나도 빠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때에서부터 1965년도까지 모든 축적된 지식, 과학 등 모든 지식, 즉 사람들이 이 기간동안 축적한 지식이, 그 다음 10년간 두 배가되었습니다. 1965년부터 1975년까지, 단지 10년 사이에 축적된 인간의 지식이 갑절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지식이 5년 안에 두 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들은 10년 안에 알 것에 단지 5%만 아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바벨탑의 일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들이 이 최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할 당시 그들의 증가된 지식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지식으로 인해 아무 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들은 옳은 목적을 위해 그들의 지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메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지를 볼 때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세계의 사람들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로 너무나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또한 너무나 악한 것을 알 기회가 있습니다. 좋고 훌륭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람의 마음을 파괴시키고, 생각을 오염으로 채우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인터넷의 가능성에 대해 흥분돼 있습니다. 우리는 갈보리 채플 웹 페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컴퓨터로 들어와 5000시리즈의 성경 주석을 꺼내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설교를 일본에서 실황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우리 갈보리 채플 웹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것을 듣는 사람들로부터 편지들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그들도 같이 설교를 듣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정말이지 굉장한 과학 기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CD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 전체의 주석인, 5000시리즈 전체를 4개의 CD에 담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을 중국으로 밀수입하는 것보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가방에 CD를 잔뜩 갖고 가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그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가르침과 주석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사람들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곧 CD에 그것을 담아 그들에게 전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학 기술 즉, 지식이 오늘날 복음을 전파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를 볼 때 참으로 영광스럽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이다호 주 트윈 폴스 시에 전선으로 전해져서, 거기서 우주 공간에 약 53,000마일 떨어진 위성으로 전파가 발송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위성으로부터 전 미국에 있는 조그마한 송신기들로 다시 유도되어 내려옵니다. 지금 위성으로부터 이 방송을 포착하는 방송국이 54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 여기서 말씀 공부하는 동안, 미국 전역에서도 다이얼을 맞추어 우리가 여기서 성경공부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과학 기술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또한 악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 너무 많이 보급되고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마음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들을 얻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식, 그것은 교만케 합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10년 후엔 우리가 알게 될 것이나 지금까지 발견되어진 막대한 지식의 증가에 비교하여 당신은 아무 것도 모를 것입니다.

3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알려진바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인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당신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갖고 있고 획득한 모든 지식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에 비해 물동이에 물 한 방울만큼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또는 속성 중의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全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과학을 알고 계십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지금 그것들을 발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따라 미치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해서, 5년마다 두 배로 영원토록 늘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문제를 꺼냅니다. ***4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 것도 아니며*** (우리는 지식을 가졌습니다. 우상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숭배하는 여러 이방 신들과, 여러 신들을 위해 지은 큰 신전들이 아무 것도 아님을 압니다. 바울이 다니면서 유일신인 하나님을 전파했는데, 매우 다신교적이었던 이 때의 서양 사회 안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사도행전 19:23-41),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이 소동을 일으켰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사업이 저조해진 연고로 다른 사람들을 요동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은장색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아데미의 이 작은 우상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작은 우상들을 더 이상 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 자를 그냥 두면 우리의 사업이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걱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형상과 우상은 실제로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신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 우상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단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고 했습니다.

5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알며, 이것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습니다. 신이라 불리우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신들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며,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서(1:15-29)에서 주장한 것은,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시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그 안에 함께 섰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7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우상들 안에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또 이 신들은 작은 신들로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 뒤에 어떤 불길한 것이 있다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것에 대해 확언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예배가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귀신학과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신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악령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지식을 가지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만약 그들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다면 그들은 양심에 가책을 느낍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숭배되고 있는 우상에는 무언가 있다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8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다른 말로하자면, 내가 먹든지 안 먹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실제 관계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서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영적으로 더 낫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성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땅콩 대신 알몬드를 먹는다고 더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으로 영적이거나 영적이지 않다고 구분하지 않으며, 먹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 땅콩 대신 알몬드를 먹는 착하고 의로운 아이를 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내가 그것은 그렇다고 믿지 않는 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그것이 그렇다고 믿는다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목사님의 교회에 나오고 싶고,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으며, 저녁에 집에 올 때는 계속적인 긴장감 안에 있게 되고, 감정도 고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앉아 맥주를 마셔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긴장을 풀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는 저녁에 집에 가서 숨을 돌리기 위해서 맥주가 필요하며 그것 없이는 긴장을 풀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청년을 놀라게 해주리라 생각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누가 당신이 직장에서 돌아 와서 맥주를 마실 수 없다고 했습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맥주를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서 입을 벌린 채 다물지를 못하면서 어떻게 대답할지를 몰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것은 그가 사용하는 핑계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의 핑계 거리를 갑자기 없애 버린 것입니다. 그는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녁에 퇴근했을 때 맥주를 즐긴다는 사실보다도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맥주를 마실 수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또 맥주를 마시면 그들의 양심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를 더 의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를 덜 의롭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믿음 때문이지, 내가 무엇을 먹고, 안먹고 혹은 무엇을 마시고, 안 마시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믿음과 신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음식은 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나은 것도 없고, 먹지 아니한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 먼저 내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나는 술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다 마실 수 있으나 나는 술을 마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은 원하는 대로 술을 마신다고 하면서 소문을 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척 목사가 물고기처럼 술을 잘 마신다. 오! 절대 아닙니다. 사실 나는 오래 전에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어머니께서는 나를 나실인으로 서원하여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기 위해 말하는 것은, 나의 일생동안 결코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태껏 술을 시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9그런즉 너희 자유함이(우상들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자유)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이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우상에게 바쳐진 것임을 알고 먹었다면, 그것으로 근심하게 되고, 양심에 가책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앞에서도 말한 것같이, 만약 당신이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당신의 믿음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필요가 없는 일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그들은 가망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담배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신을 담배를 피우면서도, 시가나 파이프를 피우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냄새는 나겠지만,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이 교회의 회원이든, 혹은 교회 안내인이든, 또는 교회 안에서 중책을 맡은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이, 당신이 크고 오래된 시가를 물고 거리를 활주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것이 그 사람을 영적으로 실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것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 지식 즉 나는 자유하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10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들여다보니, 우상의 신전에 앉아, 분명히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고 있는 당신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로서 존경하던 당신이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을 본다면, 그의 양심이 대담해질 것이고, 당신이 하니, 나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를 주시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특히 당신이 중책의 자리에 있게 될 때, 사람들은 유심히 바라봅니다. 만약 당신이 가진 자유를 사용할 때, 나는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노라. 우상이 무엇인데?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당신이 갖고 있는 이해력을 갖고 있지 않기에, 그들의 양심에 근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죄책을 느끼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들의 죄책감과 정죄감을 이용하여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11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당신의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까?

12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실상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6; 마가복음 9:42; 누가복음 12:2)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고린도전서 6:12절에서 폭넓은 진술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당하지만 만약 그것이 약한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그 자유를 행치 말아야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는 자유를 가졌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가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한다면 이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13그러므로 (결론으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사랑은 덕을 세우고, 사랑은 서로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은 나 자신의 자유를 위한 관심보다는 내가 갖는 자유함으로 인해 실족 당할 수 있는 약한 형제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행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따를 만한 좋은 규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내가 하는 일로 인해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나의 삶에 규율로 삼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세밀히 보고 있기에, 내가 사역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항상 의식하며 매우 조심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헌 차를 삽니다. 내가 새 차를 사지 않는 이유는 혹시나 어떤 사람이 이것으로 실족케 될까봐서입니다. 오! 목사님이 새 차 사셨네! 나도 새 차를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헌 차를 삽니다. 그것이 나를 기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차는 내가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항상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갖고 있는 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약한 양심을 갖고 있어서, 당신의 그 자유함으로 인해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자유를 당신 자신만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자신만 생각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볼 것인가? 이것이 그들을 실족케 할 것인가? 이것이 그들로 죄 짓게 할 것인가? 만약 이것이 약한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 살 동안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나는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며, 나는 그들을 세워 나가기를 원하지, 그들을 멸망케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자유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과 죄의 능력에서 해방시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는 그렇게 큰 해방과 그렇게 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는데 조심하여, 약한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